

전전(戰前) 일본의 매춘산업과 '몸 팔기(身賣り)'

-예창기작부소개업의 양상과 구조적 문제-

데라자와 유우 (리쓰메이칸대학)

1. 들어가며

본 보고는 예창기작부소개업자의 존재와 그 역할을 통해 1920~30년대 일본의 근대 공창제도와 매춘산업의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예창기작부소개업자(이하 '소개업자'라 한다)란, 소위 '제겐女衛(에도시대에 매춘을 중개하던 업자-역자주)', '공공주선업자'라고도 불리며, 가시자시키貸座敷(유곽)나 게이기오키야芸妓置屋(게이샤가 머물며 일하는 업소-역자주), 메이슈야銘酒屋(술을 파는 곳으로 위장하여 사창 영업을 하는 업소-역자주)에 각각 창기娼妓¹⁾, 예기芸妓²⁾, 작부酌婦³⁾가 될 여성을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업자를 의미한다. 근대 공창제도란 말 그대로 매춘을 국가나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로, 법률상으로는 '공창'인 창기의 매춘만이 허용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예기나 작부의 매춘도 묵인됐다. 이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가정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근대 공창제도는 '국가에 의한 빈곤층 구제조치'라는 기만적인 발상 하에 형성되었다고 평가된다⁴⁾. 또, 예창기작부로 취업하는 여성의 대다수는 많은 액수의 전차금을 떠안고 있어 도중에 그만두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에서, 예창기작부에 대한 취업 알선은 실질적인 '인신매매'로 비판받아왔다. 이 인신매매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소개업자였다.

예창기작부의 취업과정을 문제시한 연구는 많은데, 특히 업자에 의한 강제나 유괴, 또는 가업稼業 계약에서의 예창기에 대한 착취 등은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다. 한편,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소개업자와 소개업무 자체의 양상이나 문제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근세나 근대이행기에 관한 연구만 존재한다⁵⁾. 본 보고에서는 지금까지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대 이후(특히 1920~30년대 도쿄)의 예창기작부소개업에 주목해 소개업무 자체와 근대 공창제도가 갖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질문은 “왜 소개업자는 악덕 매매를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근대 공창제도는 정말로 빈곤층에 대한 구제조치로 기능했는가?” 이다.

2. 소개업의 개요와 면허제도화

도쿄에서 예창기작부소개업의 법 정비가 완료된 것은 1917년 2월로, 기존에는 다른 직종의 소개업과 구별되지 않았으나, 이때 전업이 의무화되면서 전문업자에게만 예창기작부에 대한 취업 소개가 허용되게 됐다⁶⁾. 이 면허제도 하에서는 소개료의 요율 외에 유괴 등 금지사항도 규정되어 있어, 이전까지 횡행했던 소개업자의 예창기작부에 대한 착취나 강제적인 인신매매의 규제가 법 정비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업자에 의한 악덕 매매가 횡행했던 배경에는, 업자들 스스로가 사회 빈곤계층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는 실정이 존재한다. 도쿄시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자들은 슬럼 주변에서 “길가에 쓰러지거나 양육원 생활을 하는” 등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처지에 놓여있었다고 하여⁷⁾, 이러한 자들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유괴를 해서라도 여성을 팔아 금전을 얻으려고 했던 업자들이었을 것이다.

또한, 소개업무가 면허제도화되어 법 정비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면허가 없는 불법 업자들이 완전히 모습을 감춘 것은 아니었다. 불법 업자들은 소위 '모구리モグリ(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업자를 이르는 속어-역자주)'라고 불렸는데, 이들은 유면허 업자의 소개가 금지된

불법 매춘업소로의 공급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예창기작부에 대한 소개료도 유면허 업자보다 낮게 책정해, 피소개자와 소개처의 포주⁸⁾ 모두 즐겨 이용했다고 한다. 즉 유면허업자는 규정을 따름으로 인해 동업자 간 경쟁에서 패배하고, 불법 업자에게로 일거리가 흘러가는 경향이 존재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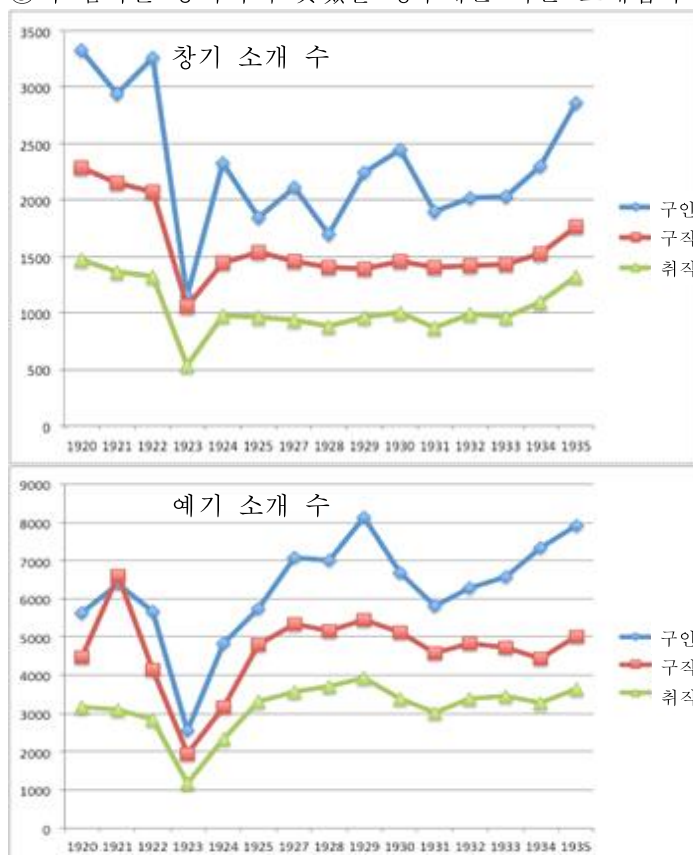
3. 소개업무의 어려움과 상호의존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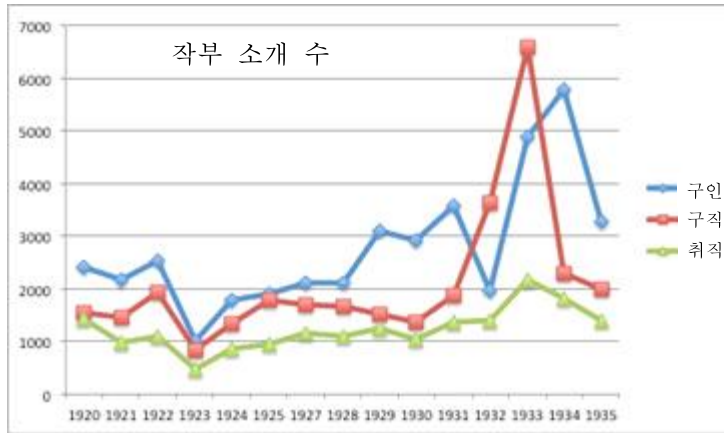
그렇다면 유면허 업자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불법 업자는 어떻게 법 정비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유면허 업자와 불법 업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언급해두고자 한다. 업자들의 몰락이 두드러진 1920년 1월, 도쿄 시내의 소개업자들로 구성된 도쿄시소개업조합은 경찰의 협력 하에 불법 업자 근절에 나섰다⁹⁾. 그러나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려고 한 찰나에 조합에 가입된 유면허 소개업자 중 일부가 불법 업자를 자신의 ‘부하’로 삼아 소개업무에 이용하는 협력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¹⁰⁾. 그와 동시에 조합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조직으로써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 소개업자들의 업계 정화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렇게 불법 업자들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구축됐던 요인에는, 물론 업자들의 도덕적 결여도 있었겠지만, 더 구조적인 문제로는 소개업무 자체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었다. 일반적인 소개업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¹⁾. ①소개업자가 피소개자 여성에 대해 과거의 취업 이력이나 부적격 사항의 유무 등을 조사하고, ②피소개자 여성의 희망에 따라 소개처를 선정하고, ③소개처에서 심사를 받고, ④계약서를 작성하고, ⑤경찰서에서 신고 및 심사를 거쳐, ⑥예창기가 허가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소개 절차가 종료된다. 여기서 소개업자는 ③ 이후의 절차가 헛수고로 끝나지 않도록 ①, ②의 조사 시점에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③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소개업자와 연계해 서로 소개처를 알선해줬다

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처를 찾기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다음은 1920~30년대의 창기·예기·작부의 업종별 <구인>, <구직>, <취직> 수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다¹²⁾. 1924년의 창기 소개 수를 예로 들면, <구인>, 즉 유박 업자가 원하는 창기의 수는 2400명 정도였는데, 창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의 수인 <구직> 수는 이를 밑도는 1500명 정도였고, 심사를 거쳐 실제로 창기로 취업한 사람의 수는 이보다 더 적은 1000명 정도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포주는 2400명을 원했지만 실제로 그 수요를 메우는 것은 고작 1000명 남짓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은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1923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기, 모든 업종에서 나타난다. 즉,





빈곤 가정의 여성들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40% 정도는 그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내무성이나 도쿄시의 위탁을 받아 하층 사회나 매춘업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던 구사마 야소오(草間八十雄¹³⁾)에 따르면, 소개업무 상에서 계약 성립은 생각외로 어려워, 보통의 용모를 가

진 여성이더라도 업소의 고객층과 맞지 않으면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희망하지 않은 지역이나 업종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한편, 업계용어로 ‘상품上玉’이라 불리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은 다소 품행이 불량해도 여기저기서 원하는 쓸림 현상이 생겨났다¹⁴⁾. 이러한 경향은 1차대전 후 일본의 경기가 기울기 시작한 1919년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고액의 전차금을 지불하는 포주가 예창기작부 고용에 신중해져 심사가 엄격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소개 성공률이 낮게 추이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법 업자와 결탁해 조금이라도 높은 값에 팔리는 상품을 찾아내 보수를 얻으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쇼와 공황기의 소개업무

위와 같이 예창기작부의 취업률은 낮게 추이되지만, 그럼에도 1920년대까지는 일부 빈곤층에게는 딸을 팔아 전차금을 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빈곤을 버티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진진 일본경제에서도 특히 결식아동이나 한 가정의 딸이 매춘에 뛰어드는 일이 급증했다고 알려진 1931~4년 쇼와 공황기에 이 숫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도호쿠 지역의 흉작으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졌던 도호쿠 공황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앞의 ‘창기’와 ‘예기’의 소개 수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 공황 이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지만, 작부의 경우 1500~2000명으로 추이되던 구직자 수가 1932년에는 3000명 이상, 1933년에는 6000명 이상으로 2~4배까지 급증했다. 야마가타현이나 아오모리현에서도 현내 취업을 제외하면 도쿄에서 작부가 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¹⁵⁾, 이 숫자는 명확히 도호쿠 공황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역시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매춘에 뛰어드는 여성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소개업의 숫자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취직 수를 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같은 해의 작부 취업자 수는 1000명 초반~2000명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취업률은 3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일본경제가 급속도로 피폐해지는 가운데, 공급은 늘었지만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는 건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몸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겨난 것이다. 아오모리의 지방 신문 《구로이시신보(黒石新報)》에 따르면,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순진한 농촌 부녀자를 교묘한 말주변으로 속여, 아주 적은 계약금으로 여성들이 동경하는 도쿄로 데려가 유녀로 팔아버리는 짐승만도 못한 소개업자들이 설쳐대”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불법 업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원래도 만연했던 악덕 매매의 폐해가 공황을 계기로 더욱 확대됐던 것이다.

5. 맺는 말과 앞으로의 과제

이상으로 1920~30년대의 소개업자와 그 업무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사실이 부각됐다.

①소개업은 다이쇼 시기에 규제가 이루어져 면허제도화됐지만, 낮은 소개 성공률로 인해 불법 업자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의존관계가 구축됐다.

②이러한 경향은 전진 일본경제가 가장 피폐했던 쇼와 공황기에 오히려 현저하게 나타났고, 수많은 매춘 난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 편승한 악덕 매매도 횡행했다.

지금까지는 몸을 파는 일이 급증했다는 현상만이 주목되어왔지만, 엄격한 취업심사 때문에 몸을 팔지 못하는 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자주 간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빈곤층 구제조치’라는 공창제도의 발상이 그 기만성을 논하기 이전에 ‘구제조치’로써도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기서 몸을 파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또다시 해외나 지방으로 팔려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경위나 방법, 그리고 이 과정에 소개업자가 어떻게 관계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번역책임자:양남윤)

-
- 1) 공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유곽이라고 불리는 구역 안에 있는 가시자시키에 소속된다.
 - 2) 일반적으로 게이샤라고 불린다. 게이기오키야에 소속되며, 본래 샤미센三味線이나 나가우타長唄 등의 예능을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예능인’이었으나, 다이쇼 시대의 도쿄에서는 예기의 매춘이 일상화됐다. 법적으로는 매춘이 허가되지 않는 사창이었다.
 - 3) 사창의 일종으로, 창기·예기에 비해 가장 대중적이며 가격이 저렴한 사창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도쿄에서는 게이샤와 마찬가지로, 본래는 매춘이 금지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춘이 묵인된 사창이었다.
 - 4) 藤目ゆき『性の歴史學』(不二出版 1998) .
 - 5) 塚田孝『身分制と市民社會』(柏書房1992), 『近世身分制と周縁社會』(東京大學出版1997), 下重清「身分的奉公と女衞について」(『民衆史研究』第34号1987年), 『身賣りの日本史』(吉川弘文館 2012) 등.
 - 6) 「芸娼妓口入營業取締規則」(東京都公文書館所藏『警視廳東京府公報』1905年5月9日), 「紹介營業取締規則」(『警視廳東京府公報』1926年12月28日), 勞働省編『勞働行政史』(勞働法令協會1961) 등을 참조.
 - 7) 東京市社會局作成『紹介營業に關する調査』(1926) pp145~146.
 - 8) 가시자시키나 게이기오키야, 메이슈야의 점주로, 예창기작부의 고용주를 의미한다.
 - 9) 『都新聞』1920年1月29日.
 - 10) 『色街』創刊号(1928年9月) pp9~10.
 - 11) 中央職業紹介事務局『芸娼妓酌婦紹介業に關する調査』(1926) pp35~40.
 - 12) 1920~35年版『警視廳統計書』로 작성.
 - 13) 구사마 야소오(1875~1964)는 내무성, 도쿄시 사회국의 촉탁을 역임하여 당시 도쿄의 많은 사회 조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사회조사(검 활동)가이다. 구사마의 활동이나 생애에 대해서는 安岡憲彦『シリーズ福祉に生きる 二 草間八十雄』(大空社 1998) 등에 자세히 나와있다.
 - 14) 草間八十雄『女給と賣笑婦』pp38~46의 예기, 작부의 취업심사에 대한 기록은 同「苦海から浮かび上がるまで 人肉市場清算帳」1932年(『近代日本の格差と再下層社會』明石書店 2013年所收)를 참조.
 - 15) 『恐慌下の東北農村 復刻版』(不二出版 1984)에 게재된「調査資料第十七号 東北地方農村疲弊狀況 第二編」第135表의 통계 데이터와 下村千秋「飢餓地帯を歩く 東北農村慘狀報告書」(『中央公論』第47 (1932年) 2月号掲載)를 참조.